

국제농업박람회, 비즈니스장 위상 과시

389억 수출협약·중국 수출상담·라이브커머스 진행 개막 6일...방문객 7만명 돌파, 11만 목표 달성 기대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 6일 만에 방문객 7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389억원 상당의 수출협약·계약 체결, 중국 현지 바이어 초청 117만9천 달러 상당 수출 상담, 전남 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진행 등 비즈니스 박람회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보다 2배 강화하는 등 K방역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까지 누적 관람객 7만6천여명을 기록, 11만명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인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방역 관리 요원 배치, 수시 환기·살균 소독 등 치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행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누리집과 유튜브, SNS 등의 채널로 병행 추진해 언제 어디서든 2021 국제농업박람회를 만나볼 수 있다.

상담의 수출 상담을 2일째까지 이틀 간 진행했다. 상담회에 앞서 중국 수출전략 세미나를 통해 최근 중국 소비 패턴 동향과 중국 해외 직구(跨境电商)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활용방안 등을 기업에 소개했다.

전남도는 상담 후 수출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진건공 재한 푸젠성 무역협회 회장 등을 초청해 지난 8월 바이어가 선정한 도내 우수제품 생산 20개 기업을 방문해 제품을 소개하고 생산시설을 견학한 바 있다.

물복지 구운 유정란 ▲27일 영광 유제품(요구르트, 치즈), 고흥 키위 ▲28일 광양 매실 장어 밀키트(초무침, 볶음), 한평 유기농 밀과 자연 속살 벌꿀이 들어간 카스텔라 ▲29일 나주 삼겹살·목살 등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김지사 “미래 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성과 격려·현안 노력 당부...일상회복 자율적용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 건립 추진, 여순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이 풀렸지만 아직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점점 산중인 만큼 미래를 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여순특별법 제정, 한국심전진흥원 전남 개원, 전라선 고속전철·광주-나주 광역철도-여수-남해 해저터널-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등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충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이번 정부에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

안동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석해 밝혀 광주·전남, 대통령 표창 2명·국무총리 표창 4명 수상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번(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계해 지역산업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장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진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광주시는 ‘광주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로’란 주제로 ▲초광역 상생발전 성과 ▲달빛고속철도 ▲2038 아시안게임 ▲광주형 일자리 ▲그린 뉴딜 ▲광주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에 나선다.



26일 오전 동구 학동에서 열린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인 ‘빛고을50+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등 내빈들이 개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장년층 지원 ‘빛고을 50+센터’ 문 열었다

어제 개관식...45-64세 대상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광주시는 26일 동구 학동 ‘빛고을50+센터’에서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정장기 빛고을50+센터장, 임택 동구청장, 황종철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이종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식순은 경과보고, 축하 퍼포먼스, 헌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인 ‘빛고을50+센터’는 시 인구의 31.8%에 달하는 장년층(45-64세)의 일과 여가·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한다. ‘빛고을50+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유공간 북카페와 정보센터, 교육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빛고을50+센터는 장년층 지원을 위한 종합플랫폼으로서 생애 재설계 상담, 노후준비, 커뮤니티 활동 등 장년층의 인생 2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조기 퇴직 등으로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년층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와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광주시, 대외협력수석보좌관에 김중환씨 임명

신임 광주시 대외협력수석보좌관에 김중환(사진) 전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이 26일 임명됐다.

그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시와 국회·중앙부처간 가교 역할은 물론 협력이 필요한 기관과 소통하면서 시장을 보좌한다. 시는 김 수석보좌관이 현재 추진중인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지원할 ‘광주인공지능산업육성’에 관한 특

관(2급 상당)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시와 국회·중앙부처간 가교 역할은 물론 협력이 필요한 기관과 소통하면서 시장을 보좌한다. 시는 김 수석보좌관이 현재 추진중인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지원할 ‘광주인공지능산업육성’에 관한 특



역사 증축 등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주의운전은 필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곳입니다.

최근 2년간(2018~2019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 구분 | 사고건수 | 사망자수 | 치사율 |
|------|-------|------|-----|
| 사업용 | 2,133 | 71 | 3.3 |
| 비사업용 | 6,826 | 70 | 1.0 |
| 합계 | 8,959 | 141 | 1.6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높음**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치사율은 평균보다 2.1배(3.3명) 높음**

* 치사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주최 | 광주매일신문 |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롯데쇼핑(주)